

## “과학기술인은 과학기술 世界化의 견인차 되길”

### 李壽成총리, 科總주최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서 당부 과학기술계 인사 5백여명 참석 ... 한국과학상도 시상



▲ 科總주최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주요인사들. 왼쪽부터 趙完圭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成樂正과총회장, 李壽成국무총리, 鄭根謀과기처장관, 閔寬植과총명예회장, 權昇赫학술원회장, 朴肯植한국기계연구원이사장, 鄭助英과총상임부회장, 朴泰源인하대명예총장, 金始中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이사장.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成樂正)는 李壽成국무총리 초청 1996년도 과학기술인신년인사회를 1월9일 오후5시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李壽成국무총리를 비롯 鄭根謀과학기술처장관, 鄭宗澤환경부장관, 成樂正과총회장, 閔寬植과총명예회장, 崔亨燮과총차기회장 등 관계인사 5백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열렸다.

이날 成樂正과총회장은 개회인사에서 “올 한해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온 국민이 새로운 혁신과 도약을 이룩해야 할 때이므로 우리 과학기술인들도 새시대, 새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국가과학기술력을 고양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큰 소명의식을 확고히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5백만 과학기술인의 구심체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명실공히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총본산으로서 모든 과학기술인의 대변자적 역할의 수행은 물론 모든 과학기술인의 권익신장을 통한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온 정력을 쏟음으로써 과학기술이 중시되고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해 가는 한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李壽成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날 과학기술은 국가 사회발전의 원동력일뿐만아니라 국가경쟁력의 원

천이며 국가위상을 높이는 바탕이 되고 있다”면서 “지금 선진국들은 기술우위 선점을 위하여 첨단과학기술 개발에 모든 국가역량을 경주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과학기술정책을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하고 “과학기술이 국가 경제 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시대의 중심에 서 있는 과학기술인들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세계화의 견인차가 되어 우리가 21세기 세계경영의 중심국가로 부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총리는 이어 “정부는 새해부터 현재 세계14위 수준에 머물고있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을 2천년대초까지 <G7권>으로 진입시키기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과학기술 세계화전략의 기반으로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체제를 구축함과 아울러 연구개발실명제인 프로젝트베이스시스템을 본격 추진하고 민간기업 기술의 국제화를 촉진하는 등 나라 전체의 과학기술력을 한층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權昇赫학술원회장, 金東一원로과학기술자문단장, 趙完圭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李祥義우주정보소년단총재, 金鎮炫서울시립대총장, 金始中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이사장, 金琛謙국회의원, 林昌烈과학기술처차관, 朴辰好한국과학재단사무총장, 金基衡한국과학기술원이사장, 崔鍾浣(주)인터세크대표이사, 李寬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사장, 李士燮전과학기술처장관, 朴肯植한국기계연구원이사장, 安

京模전교통부장관, 崔順達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센터소장, 金殷泳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沈相哲대한화학회장 등 학계·산업계·연구기관대표 및 과총 산하회원단체장들이 참석했다.

한편 과학기술처가 구랍4일 발표한 제5회 한국과학상 4개부문 수상자(崔在貳포항공대수학과교수·任志淳서울대물리학과교수·金明洙서울대화학교수·金有三연세대생화학교수)에 대한 시상식도 이날 거행됐다.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1월 9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과학기술인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6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 6-7월경 서울서 南北과학기술교류심포지엄 개최 科總 남북민간科技交流協, '96事業계획 및 예산확정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1월25일 과총회의실에서 남북민간과학기술교류추진협의회 199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 1995년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결산을 승인하고 1996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총회에서는 올 사업의 기본방향을 △한민족공동체정신에 입각한 민간차원의 통일기반 조성 △남북과학기술공동관심분야 또는 취약기술의 상호보완 △민간과학기술교류육구의 수렴·조정 및 전문적 자문과 대표성강화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 유대강화 등에 두고 금년도 주요사업으로 △남북민간과학기술자대표자회의 개최 △남북과학기술교류심포지엄 개최 △남북농축산학술대회 개최 △북한의 과학기술실태 조사연구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 공동협의회 운영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동 협의회는 오는 6~7월경 서울에서 남북과학기술교류심포지엄을 열고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센

터 설치를 추진키로 하는 한편 북한의 지질광물자원조사 등 북한의 과학기술 실태조사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선출을 오는 3월 구성되는 과총 차기회장단에게 위임했다. ㉮

## 과총대표 전국구의원 후보공천 배려를

—— 科總, 신한국당 등 4개 정당대표에 건의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成樂正)는 1월16일 을 제15대 총선거와 관련, 국내과학기술인과 관련된 단체의 총본산인 科總대표를 국회의원 전국구후보로 공천해 줄 것을 신한국당과 새정치국민회의, 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등 4개 정당대표에게 건의했다.

科總은 한국물리학회 등 산하 3백14개 회원단체와 공동으로 제출한 “국회의원 전국구후보추천 특별배

려에 대한 건의”를 통해 지금까지의 관례인 학계 또는 경제계 출신 전국구의원과는 별도로 과학기술계 직능대표를 전국구후보로 추천함으로써 치열한 국제경쟁을 극복할 수 있는 국가과학기술력의 제고와 실효성있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입안·심의·평가 등 입법과정에서 과학기술계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어 국가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